

광주시, 지역 국가유산 활용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서 8개 선정
‘광주방문의 해’ 연계 “일상 속 경험”
환벽당·월봉서원·원효사 등 활용
산사 소확행·힐링 음악토크 등 다채

광주광역시와 국가유산주관을 맞아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8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자치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광주향교路(로) 거닐다 시시각각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달의 정원-월봉서원 △산사계夢(몽) 네날의 노래 △돌의 시간 △무양 In the city 등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주간(지난 달 30일~이달 22일)에 집중 운영한다.

광주시는 무형유산 가야금 병창을 비롯한 환벽당, 월봉서원, 원효사 등 광주의 국가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시민

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서구는 만귀정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국가유산인 가야금 병창 무형보유자와 병천사, 화담사를 활용해 풍류토크 콘서트를 열고, 만드리 들노래 체험, 시골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

남구는 전통유학 교육기관인 광주향교에서 오는 11월까지 ‘광주향교路(로) 거닐다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즈넉한 광주향교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는 광주향교 가족음악회 ‘시시각각’부터 유림 체험과 전통혼례를 경험하는 ‘희경류 풍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구는 원효사에서 오는 10월까지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나와 이웃, 다식·다도 체험, 주상절리 목판 체험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월봉서원 등에서 오는 12월까지 ‘달의 정원-월봉서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월봉서원에서 선비의 하루를 체험하고, 달빛 아래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들으며 힐링하는 음악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대표 브랜드 10선에 올랐다.

이 밖에 신창동 유적을 활용한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프로그램과 장덕동 근대한옥,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을 활용한 ‘광산사계 夢’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국가유산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내 대표 문화유산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국가유산주관을 맞아 광주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김 등 해조류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금속 등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전라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4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남 김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998만 달러·82.3% 증가), 미국(3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지하철, 양동시장역 등 10곳에 ‘무더위쉼터’

목재평상·대형선풍기 설치

광주도시철도가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 지하철역을 ‘무더위쉼터’로 개편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역사 대합실 내에 무더위쉼터를 조성, 오는 16일부터 노약자 등 지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양동시장역, 화정역,

쌍촌역 등 10개 역에 목재평상과 대형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당일 기온 등을 고려해 냉방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쉼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전 지하 역사에 방풍문 설치를 완료, 폭염 차단 효과와 냉방 에너지 효율을 높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20~30% 감면

세대 분할…취약계층 부담 완화

광주광역시가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해 주거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20~30% 줄인다.

광주광역시는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분류, 수도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해왔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세대분할

을 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수도물 사용량이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할 경우 분할세대별 수도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 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세대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이후 고시원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점검 분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정성아 기자



전라남도는 10일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 소방본부,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운영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쾌적·안전한 해수욕장 이용 대책 마련

7월부터 54개소 개장…시설 정비
버스킹·음악회 등 각종 이벤트도

전라남도는 10일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운영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 소방본부,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해수욕장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 명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5% 많은 66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장은 54개소에서 7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51일간 이뤄진다. 7월 첫째 주 여

수, 함평을 시작으로 둘째 주 목포,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신지명사십리, 셋째 주 해남, 무안, 영광 송이도, 진도, 신안, 넷째 주 영광 송이도, 완도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 그늘막, 산책로 조성 등 해수욕장 시설을 정비한다.

또 안전요원 300여 명과 안전장비 4000여 대 확보, 수질 및 배사장 관리를 위한 환경 검사,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시군에서는 관광객의 즐거움을 위한 이색 콘텐츠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갯벌 생물, 장어잡기 체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버스킹·음악회 등 각종 행

사·이벤트도 운영한다.

해수욕장 연계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보성 울포 해수욕장에 첨단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시설을 갖춘 ‘해양복합센터’를 건립하고, 2028년까지 웅천 해수욕장 인근에 해양레저 랜드마크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며, 2023년 개관한 해양치유거점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약산 해양치유숲,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해양치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해수욕장이 여름철 단순 해수욕 한계를 넘어 사계절 국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토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맛, 힐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 올해는 꼭 전남 해수욕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유쾌한 홍보 문구 시민이 뽑는다

정책 31개 대상 ‘셀프홍보어워드’
16일까지 시민 참여 ‘블로그 이벤트’

광주광역시는 10~16일 7일간 ‘2025 정책평가박람회’ 평가후보 정책 31개를 대상으로 ‘셀프홍보어워드’를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셀프홍보어워드’는 광주시 정책담당

자가 자신이 맡은 정책을 소개한 홍보문구 중 가장 인상 깊은 문구에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다.

참여자들은 정책 슬로건을 활용한 문구나 재치 있는 표현 등 다양한 형식의 문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홍보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또 1등과 2등으로 선정된 홍보문구는 정책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셀프홍보어워드’를 처음 도입, 직원이 직접 제작한 정책 홍보영상을 시민에게 소개한 바 있다. 우수작은 조희수 4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고, 현재까지 5만회 이상 누적 조회를 기록하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성아 기자